가며 작업을 하여야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경화제를 넣어 완성된 배합액을 호스를 통해 옆방 코팅실 코터기로 흘려보내 필름원단에 묻어 생산하면 슬리터실에서 작업하기전의 원단이 완성되는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일을 맡아 작업을 하다 보니 책임감 있게 실수없이 하려고 노력하였습니다. 사실 배합할 때 냄새가 엄청난데 3주차 첫날은 냄새 때문에 정말 고생했습니다. 방독마스크를 껴도 새어들어 와서 힘들었지만 차차 적응하여 확실하게 배합을 하게 되었습니다. 금요일에는 배합을 잘하였다고 선배님께 칭찬도 받아서 기분도 좋고 뿌듯했습니다.

이렇게 벌써 3주차가 마무리 되고 4주차에 접어들면서 마지막까지도 실수하지 않도록 하고 맡은바 최선을 다하여 멋지게 유종의 미를 거두고 싶었습니다.

4주차에는 생산물량 양이 많아져서 매우 바빴던 마지막주를 보냈습니다. 3주차에는 어느 정도 익숙해져 능숙하게 했지만 많은 물량을 하려다 보니 헷갈리는 부분도 많고 이리저리 더 많이 뛰어다니게 되고 선배님들께 실수해서 혼나기도 많이 혼났습니다. 바쁜 일정을 소화하고 잠깐 시간이 나서 쉴 때 이런저런 이야기를 들으면서 화를 내고 혼낼 수 밖에 없는 이유를 듣게 됐습니다. 배합에 들어가는 화학액체가 가격대가 비싸다보니 조금만 실수해도 회사 입장으로 큰 손해를 보게 되고 기계가 크고 위험하다보니 혼낼 수 밖에 없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단지 실습생이라 지나가는 사람이라 생각하지 않고 같이 일하는 팀원처럼 챙겨주는 모습을 보고 정이 많고 따뜻한 사람들이라는 것을 느꼈습니다. 바쁜 와중 마지막 4주차가 점점 마무리 되고 있음을 느껴 아쉬었고, 꼭 기회가 있다면 입사하고 싶은 회사로 기억 남게 되었습니다.